

이유 없는 미움

*"이것이 이루어짐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25*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는 그를 미워했고, 결국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는 희생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이기적인 방식을 비난했고, 가르침을 통해 인기 없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대중적인 오류를 폭로했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서 발췌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셨고, 곧 다가올 사건에 대비하여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하늘의 부르심의 놀라운 특권을 누릴 준비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3:1

세상의 조롱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은 겸손하고 비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시 종교계의 선의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군중이 사랑하는 주님 주위로 몰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 동기는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물질적 또는 육체적 이익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충실히 따르거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26, 27, 60, 66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해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의 다스림과 평화가 끝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7). 그러나 그들은 왕국의 영광과 관련된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그가 세상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왔다고 믿었던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다가올 죽음의 필요성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21).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제자의 특권을 물질적 이점과 자신과 함께 함으로써 얻게 될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오순절 이후에는 그들이 이해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 추종자들이 싫어하는

제자들은 스승을 사랑했고 그가 하느님이 임명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영광과 명예에 앞서 그의 사역과 관련된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의 큰 영광에 대해 미리 말씀하실 때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시간이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11

오늘 소개하는 성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세상은 당신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당신을 자기들처럼 사랑했을

것이지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가 널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널 미워한다. 내가 했던 말 기억나? '노예는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그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당연히 당신도 핍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18-21

스승은 또한 "그러나 너희가 흩어져 각자의 길을 가고 나를 홀로 남겨둘 때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마음에 담으십시오." 요한복음 16:32 및 33

제자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 다가올 흠어짐과 핍박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이겼고, 자신들도 계속 제자가 된다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승리의 확신으로 제자들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버 커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 가르침에서 보여주신 모범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대와 싸우는

투쟁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신성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적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야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 즉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적이며, 그의 동맹은 세상과 우리 자신의 타락한 육체입니다. (베드로전서 5:8, 요한복음 17:14, 15, 로마서 7:18).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나는 운동선수처럼 내 몸을 단련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교한 후에 나 자신이 실격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9:27

"극복"이라는 용어는 마귀와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묘사하는데 사용됩니다. 악은 사탄이 왕자인 세상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악이 너희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되 선을 행함으로 악을 정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로마서 12:21). 요한도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승리(그리스어: 성공의 의미)이며,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이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5:4

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랑의 후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기심의 근원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서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시대에서 그분을 충실히 섬겨 왔으며,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아왔지만, 나머지 인류의 대다수는 이기심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이 형상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7). 그러나 세상과 그 정신을 극복하는 것은 가끔씩의 친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원칙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는 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 가족은 '자기'를 삶의 지배적인 동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이익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이며,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4

서로 사랑하기

이기심을 없애고 사랑의 원리가 삶의 지침으로 온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삶의

방식으로서 가장 포괄적인 사랑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추종자들에게 사랑을 강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34

이 사랑의 정신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던 부유한 젊은 통치자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마 19:16-22; 눅 18:18-23). 그는 자기 보존의 법칙을 따르면서 자신을 위해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이기심을 무모하게 버리라는 예수님의 충고에 당황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27).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이 부유한 젊은 통치자에게 요구한 조건에 따랐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그의 모든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원칙은 같았습니다. 이 희생을 한 제자들은 당연히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 베드로의 질문은 그가 아직 제자도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마도 명예와 위신과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받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겸손한 어부가 되는 대신 메시아의 왕국에서 눈에 띄는 지위, 즉 통치자나 사람들 사이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로워지고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여러분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재산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나 그 대가로 백 배나 더 많이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28-29).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하기를 바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위로와 공급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후의 잉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며 그곳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내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천벌을

받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의의 충고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위험한 덧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22-23). 베드로는 스승에게 자기 이익이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말고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대의를 자신도 모르게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공연하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며 에덴 시대부터 이어져 왔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숨에 매달리려고 하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구할 것이다." 24절과 25절

예수님은 당시에 온 인류를 위해 희생적으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회에서는 대부분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내가 먼저"라는 세상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방에 둘러싸인 이기심의 원리에 맞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이기심 없이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빌립보서 3:7, 8; 요한일서 3:16).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15).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원칙과 기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세상의 이기적인 정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살고 일하는 동안 세상의 일반적인 정신을 따르지 않고 신성한 사랑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2

죽음에 이르는 세례

매년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날에는 풍성한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빵과 잔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희생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26-29). 이처럼 주님의 대속 희생의 혜택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내려놓는 '날마다 죽는' 희생의 특권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13). 여기에는 세상의 배척, 체력 소모, 말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상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 것을 잊었습니까?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그와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6:3-5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이자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경험이 그분과 비슷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예는 주인보다 크지 않다. 또한 메신저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3:16). 주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자에게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더라도"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승리하여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승리한 자들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21